

체형 및 의복 색이 남자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ody shapes and Apparel Colors on Male Children's Impression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 수 김 재 속
시간강사 송 경 자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Jae-Sook Kim

Lecturer : Kyung-Ja So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odyshape and clothing color on boy's impression.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480 elementary students, 11~12 years old. The stimuli were consisted of 12 color photographs by using CAD system that was different in the bodyshape, the clothing color and the level of contained color each other. The subjects reported the stimuli's impression on the questionnaires.

The image of the stimuli were emerged 5 differented dimensions ; attractiveness, evaluation, potency, bodyshape, visibility. The boy's impressions of normal bodyshape were more attractive, positive evaluation and thin than obese bodyshape. The boy's impressions who was dressed in pink color shirt were thin than blue color. The boy's impressions were positive evaluation when he was dressed in shirt with pink or blue color in collar and cuffs and the whole. The boy's impression of normal bodyshape wearing blue color shirt was the most attractive but the boy's impression of obese bodyshape wearing pink color shirt was not charm. The boy's evaluation who was normal bodyshape wearing pink color shirt was the most positive and the most thin.

주제어(Key Words): 남자 아동의 인상형성(boy's impression), 체형(body shape), 의복색(clothing colors)

I. 서론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로 작용하며, 지각대상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Gordon Allport는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의 30초 동안에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체격, 국적, 직업, 사회계층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그밖에도 성격, 우월성,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도 어느 정도는 파악된다고 하였다(Ham & Gurel, 1981). Lennon(1990)의 연구를 보면 의복이 매력적일 때 사회성이나 능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11세 이후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인상형성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험자 또한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인 11세를 대상으로 하며, 피험자 또한 연구 대상과 같은 또래집단으로 하였다.

최근 아동들의 인스턴트를 선호하는 식문화는 비만아동을 증가 시켜 왔으며, 조윤주 등(1999)의 연구를 보면 9~11세의 아동 중 22.5%가 비만한 체형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의 미의 개념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날씬함을 추구하게 하고 비만한 체형은 신체의 건강함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체형은 자신에 대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 아동의 체형을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복의 색상은 의복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강혜원, 1995). 10세를 전후해서 의복 디자인에 관심이 늘게

되며 그들의 흥미는 어른들과는 달리 스타일보다는 타인의 주목을 끌만한 밝은 색상의 의복이나 세부적 장식이 있는 의복에 흥미를 갖는다고 하였다(Hurlock, 조진숙, 1997, 재인용). 따라서 아동, 특히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밝은 색상이 포함된 의복에 관한 연구는 의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형·의복색이 남자 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그 후에 오는 단서를 무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강혜원, 1995).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총체적 접근이론과 인지적 수학적 접근이론이 대표적이며, 총체적 접근은 날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것으로 최종 인상은 각 정보들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최종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학적 접근이란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에 따른 이론으로서, 인상형성 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개의 정보들의 의미가 기계적으로 합산되어 최종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다(강혜원, 1995).

대인지각은 주관적인 반응이며, 이때 의복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만이 아니라 확장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의 한 종류인 상징이 되며 의사소통에 매개체가 된다(Forsythe, 1986).

2. 의복 색과 인상형성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색이 있으며, 색의 상징성이나 성격은 문화에 따라 혹은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나타낸다. 즉 파랑색은 남아의 색이고, 분홍색은 여아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이미현 등, 1996). Abramov(1986)은 선호색은 개성에 따라 다르며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사용했을 때 가장 멋있게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혜숙(1996)의 연구를 보면 파랑은 온냉감(시원하다)이미지와 심리적(편안하다, 차분하다)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은 성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 형태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보여, 모든 의복형태에서 파랑과 자주의 조합은 성숙한 이미지로 노랑과의 조합은 어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고예란(1990)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보다는 형태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빨강색 의복 착용자는 화려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며, 파랑색 의복 착용자는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검정색 의복 착용자는 깔끔하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연령으로 볼 때 어린이들은 검은 색이나 탁한 색들은 거의 입지 않고 옅고 자극이 적은 색이 바람직하고 10대에는 고명도나 고채도의 색이 애용되고, 20-30대에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색이 세련된 느낌을 주며, 무채색은 공식적이며 점잖은 분위기를 준다(이호정, 1987, 재인용).

3. 체형과 인상형성

대인지각 과정에서 착용자 변인인 성별, 연령, 신체적 외모 등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착용자의 체형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미국내 교과서의 삽화에서 소녀의 그림은 점차 마르게 표현되어 왔으며(Davis 등, 1992), 10대의 아

동이 자신의 신체너비를 과대 평가함으로써 실제보다 비만으로 여기고 있었으며(Brodie, 1994),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Koslow(1988)의 11세와 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자 어린이는 자신의 체형을 과대 평가한 반면 남자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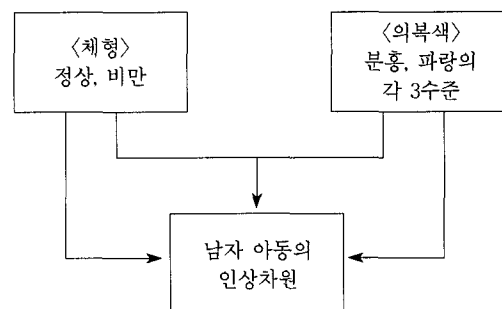
송경자(1997)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더욱 크게 왜곡하여 지각하였으며 비만한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숙(1992)의 연구에서는 정상체형은 비만체형보다 더 눈에 띄고 세련되었으며 화려한 인상을 주었으며, 비만체형은 정상체형보다 더 친밀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숙(1995)의 연구에서는 정상체형의 아동에게는 의복형태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비만체형에서는 격식차림이 편안한 차림보다 더 지적인 인상을 주었고 여성적인 차림이 매력있는 것으로, 남성적인 차림이 활발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체형인 경우 의복의 영향을 더욱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연구의 모형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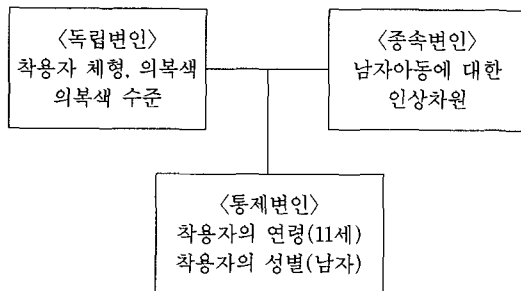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체형, 의복색, 의복색의 3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인상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아동의 체형, 의복색, 의복색의 수준, 지각자 성별에 따라 인상차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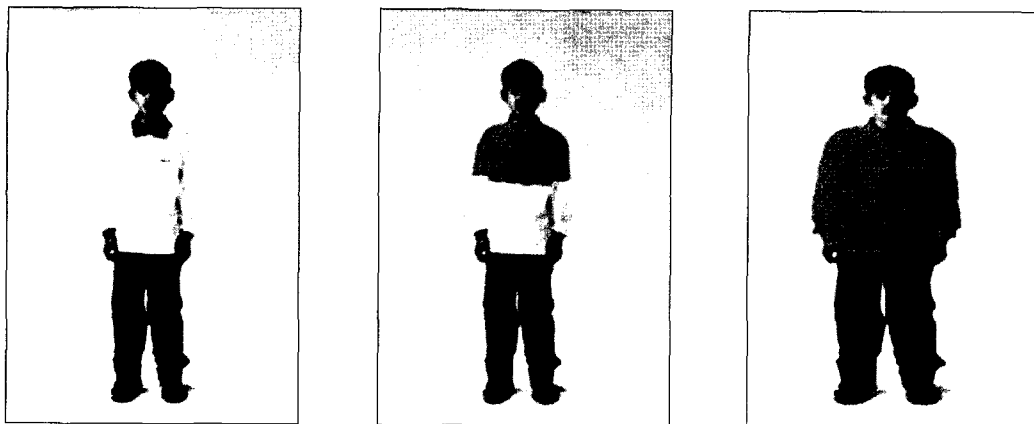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자극물을 보고 설문지에 응답토록 하



〈그림 2〉 연구의 변인



〈그림 3〉 본 조사에 사용된 자극물

는 준 실험연구로 접근하였으며 관련변인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제작과정

만 11세의 평범한 인상으로 보이는 10명의 남자 아동 중에서 최근 마른 체형을 정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을 반영하여,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의 1차 평가를 거쳐 가장 평범한 인상으로 보이는 1명을 최종 선택하여 본 연구의 모델(신장 144cm, 체중 35kg)로 하였다.

의복 스타일은 남자 아동이 흔히 입는 청바지를 하의로 하고, 티셔츠는 대전시내의 백화점과 아동복 전문점을 조사하여 널리 입혀지는 기본적인 스타일로 결정하였다. 아동의 체형(2), 의복 색(2), 의복 색의 수준(3)을 독립변인으로 한 2*2*3의 요인 설계에 따라 12개의 자극물을 9cm×13cm의 크기로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였다.

① 의복색의 조작

CAD System을 이용해 하의는 남자 아동들이 가장 널리 입는 청바지로 통제하고 티셔츠에 의복색이 분홍색(25RP 7/10), 파랑색(5PB 5/12)을 3수준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의류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아 수준 1은 상의의 칼라, 소매단을 각각 분홍과 파랑색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준 2는 칼라, 소매단, 가슴부분에 각각 분홍과 파랑색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준 3은 티셔츠 전체가 분홍이거나 파랑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배경색은 의복색에 비교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회색(65/0)으로 선정하였다.

② 체형의 조작

CAD System을 이용해 모델로 선정된 아동의 체형을 정상 체형으로 하여 비만 아동은 정상아동의 모습을 세로길이(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로의 넓이를 150%로 확대하였으며 머리는 125%로, 목의 두께도 적절하게 조작하여 비만으로 보이도록 하였으며 의류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아 결정되었다.

(2) 설문지의 구성

선행연구(강혜원, 1990; 이주현, 1990; 이미숙, 1995; 이혜숙, 1996)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지각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형용사쌍 중에서 아동의 인상차원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47개를 추출하여 초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시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그 밖의 형용사들을 자유기술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분석한 후 연구 대상 연령층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는 문항등을 제외하고 최종 25개의 형용사쌍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성별, 연령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자극물의 착용자와 같은 또래인 만 11세-12세의 초등학생이며, 피험자는 대전과 충북 청주, 충남 금남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자극물에 40명씩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자극물은 일반적인 사진의 크기(3×5 inch)로 제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00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5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변량 분석, t-검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남자 아동의 이미지에 관한 요인 도출

남자 아동에 대한 이미지 차원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표 1> 남자 아동의 이미지 차원

형 용 사 쌍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력	신뢰도계수
요인 1 : 매력성				
인기있는-인기없는	0.73	9.37	23.12	0.81
멋 있는-멋 없는	0.72			
매력있는-매력없는	0.70			
예쁜-미운	0.62			
귀여운-귀엽지 않은	0.58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않는	0.56			
보기 좋은-보기 싫은	0.45			
요인 2 : 평가성				
예의 바른-예의 없는	0.74	3.74	9.22	0.71
겸손한-겸손하지 않은	0.69			
공부를 잘하는-공부를 못하는	0.68			
모범생 같은-낙제생 같은	0.56			
믿음직한-믿음직하지 않은	0.46			
부지런한-게으른	0.41			
요인 3 : 역능성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0.71	3.37	8.30	0.68
적극적인-소극적인	0.66			
발표력 있는-발표력 없는	0.60			
적응을 잘하는-적응을 못하는	0.56			
친구와 잘 사귀는-친구와 잘 못 사귀는	0.51			
재미있는-재미없는	0.41			
요인 4 : 중량감				
날씬한-뚱뚱한	0.87	2.26	5.58	0.71
가벼운-무거운	0.78			
요인 5 : 현시성				
밝은-어두운	0.69	1.94	4.78	0.49
산뜻한-칙칙한	0.54			
따뜻한-차가운	0.49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12개의 자극물을 25개의 형용사쌍 단어의 의미미분 척도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자극물의 이미지는 '능력있는-능력없는' 문항을 제외한 24개의 형용사쌍이 <표 1>과 같이 5개의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5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50.99%였다.

요인 1은 인기있는-인기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므로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변량의 23.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예의바른-예의없는, 공부를 잘하는-공부를 못하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므로 평가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변량 중 9.22%의 설명력을, 요인 3은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발표를 잘하는-발표를 못하는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역능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변량 중 8.30%의 설명력을, 요인 4는 날씬한-뚱뚱한, 가벼운-무거운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중량감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변량 중 5.58%의 설명력을, 요인 5는 밝은-어두운, 산뜻한-칙칙한 등의 문항을 포함하므로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변량 중 4.7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성인 대상의 연구(고애란, 1990; 이미숙, 1995)와는 다르게 매력성 요인이 제 1요인이 되었으며 체형과 관련된 문항은 매력성 요인과는 구분되어 11~12세의 아동에게는 성인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색·지각자 성별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각 이미지 차원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체형, 색, 지각자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체형은 매력성, 평가성, 중량감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즉, 정상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더욱 인기있고 멋있으며 매력적으로 지각되어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적 차원에서도 정상체형은 비만체형보다 더 예의 바르게 보이고 겸손하며 공부를 잘해 모범생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성인의 정서가 아동에게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상체형은 비만체형보다 날씬하게 보이고 가볍게 지각되었으나, 역능성 요인과 현시성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색에 따라서는 매력성, 평가성, 역능성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량감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분홍색을 입었을 때가 파랑색을 입었을 때보다 날씬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분홍색이 파랑색보다 비만하게 보일 것이라는 성인의 고정관념이 아동들에게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게지각은 색상보다는 채도나 명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으므로(Alexander K. R., Shandkey M. S., 1976) 파랑색보다는 분홍색이 더 밝아 가벼운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중량감·색·지각자 성별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

(n=480)

변인		요인		매력성		평가성		역능성		중량감		현시성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체형	정상	0.16		0.12		-0.01		0.44		0.01			
	비만	-0.16	4.29***	-0.12	3.17**	0.01	-0.35	-0.44	18.95***	-0.01	0.29		
색	분홍	-0.07		-0.05		0.09		8.29		0.03			
	파랑	0.07	-1.93	0.05	-1.24	-0.09	0.26	-8.29	2.70**	-0.03	0.75		
지각자 성별	남자	0.05		-0.14		0.05		0.02		-0.04			
	여자	-0.06	1.47	0.15	-4.02***	-0.05	0.13	-0.02	0.57	0.05	-0.13		

** p<.01 ***p<.001

지각자 성별에 따라서는 평가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들의 경우에 남자 지각자보다 자극물에 대해 더욱 예의 바르고 모범생인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자극물이 남자아동이므로 이성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색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F값=3.22, p<.05)를 보여 칼라·소매에 분홍색이나 파랑색이 포함된 경우와 전체가 분홍이거나 파랑이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겸손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슴·소매에 분홍색이나 파랑색이 포함된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아동복의 패션경향을 볼 때 일상복으로는 칼라·소매에 색이 포함되거나 셔츠 전체에 색이 포함된 의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체형 및 색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

색의 수준에 따라서는 각 이미지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색의 수준을 무시하고 체형 및 색이 각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은 경우, 비만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은 경우, 정상체형이면서 파랑색 상의를 입은 경우, 비만체형이면서 파랑색 상의를 입은 경우로 나누어 이를 독립변인으로, 각 이미지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매력성 요인에서는 정상체형이면서 파랑색 상의를 입었을 때 가장 멋있고 매력 있게 지각되어 호감이 가는 것으로 지각되어 분홍색은 여아의 색이고 파랑색은 남아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이 11세를 전후한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었을 때 가장 멋없고 보기 싫은 것으로 지각되어 11세 전후의 아동들도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성 요인에서는 정상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었을 때 가장 겸손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비만 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었을 때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가장 공부를 못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중량감 요인에서는 색상에 관계없이 정상체형일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정상체형이면서 분홍색 상의를 입었을 때 가장 날씬하고 가볍게 지각되었다. 반면, 역능성요인과 현시성 요인에는 체형 및 색이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색·지각자 성별·색의 수준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체형, 색, 지각자 성별, 의복색의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각 이미지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시성에 대한 색의 효과는 지각자 성별에 따라, 체형관심에 대한 체형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차원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각 변인들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체형 및 색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

(n=480)

변인		매력성		평가성		역능성		중량감		현시성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체형 및 색	정상분홍	0.15AB	6.72***	0.15A	4.40**	0.01A		0.07B	140.81***	0.04A	0.13
	비만분홍	-0.29C		-0.26B		0.02A		-0.52C		0.02A	
	정상파랑	0.24A		0.13A		-0.04A		0.57A		-0.02A	
	비만파랑	-0.07BC		-0.02AB		-0.02A		-0.82D		-0.03A	

p<.05 *p<.001

ABCD : Duncan Test 결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인지각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극물과 같은 또래 집단인 1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매력성 요인, 평가성 요인, 역능성 요인, 증량감 요인, 현시성 요인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2. 정상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날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 분홍색 상의를 입었을 때 파랑색보다 더욱 날씬하고 가볍게 지각되었으며, 가슴·소매에 분홍색이나 파랑색이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칼라·소매 혹은 전체에 분홍색이나 파랑색이 포함되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에게는 인상차원에서 중요시되는 요인이 성인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체형이나 의복색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 특히 지각자들은 의복색보다 체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는 최근 비만에 대한 거부감과 날씬함을 선호하는 성인들의 기준이 아동들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복 제조업체에서는 아동들이 좀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의복색의 포함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색이 의복에 얼마나 포함되는가 보다는 어떤색이 사용되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홍색과 파랑색만을 비교 조사하였으나 아동복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색상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며, 무게감 지각에는 명도나 채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같은 색상이라도 명도나 채도를 달리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복은 아동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기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 교문사
-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숙(1992).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1997).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현 등(1996). 성 관련 의복단서와 성 역할 정체감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4(3).
- 이주현 등(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19(5).
- 조윤주 등(1999). 비만아동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 분류 및 특성연구(제 2보). 복식문화연구, 7(3).
- 조진숙(1997). 아동화에 표현된 '옷'에 대한 의미 분석-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4호).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ramov, I. (1986). An Analysis of Personal Color Analysis.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 Alexander, K. R., Shandky M. S. (1976). Influences of Hue, Value and Chroma of the Perceived Heaviness of Colors. *Perception and Psychophysics*(19-1), 72-74.
- Brodie, D. A. etc. (1994). Body-Image Perception In Pre-And Postadolescent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 Davis, J. etc. (1992). Societal Influences on a Thinner Body Size in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 Skills, 74.
- Forsythe, S. M. etc. (1986).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Koslow R. E. (1988).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Estimates of Body Fatness and ures of Body Fatness in 11-and-12-Year-Old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Appoied Social Psychology*, 18, 6.
- Lennon, S. J. (1990). Effect of Clothing Attractiveness on Percep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4).